

○ 權炯台 委員

○ 질 문

- ・ 重金屬, 塵肺症 등 職業病에 대한 豫防과 補償對策은?(페이지 53 참조)

○ 답 변

※ 대구지방노동청 및 각 지방노동사무소에서 파악된 자료

- 도내 5인이상 사업체 4,909업체에 308천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그 중 직업병은 '90년에 진폐증 354명, 난청 9명, 비중격 천공 1명으로 총 374명이 발생하였으며, '91년 7월 현재까지는 진폐증 227명, 난청 12명이 발생하여 전체 근로자의 0.08%의 직업병 환자가 발생하였음.
- 도내 6개소의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직업병발생에 따른 사후관리 및 보상대책으로
  - ・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고
  - ・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 및 장해보상을 청구토록 안내함과 동시에 법령에 정한 요양 및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
- 직업병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
  - ・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환경개선 지도
  - ・ 근로자 건강진단 및 질병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
  - ・ 중금속 및 유해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집중관리 및 특별관리
  - ・ 직업병 상담실 운영
  - ・ 사업장 보건관리 조직 선임 지도
  - ・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화
  - ・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준수 의무 사항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.